제3강 자유와 주체성(1) : 그리스의 비극과 자유

서설: 그리스 비극과 '자유'

비극은 고통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라 할 수 있다. 문학으로서 고통의 체험과 반성은 보편성을 지님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획득한다. 비극의 내용을 이루는 비극적 의식은 개인의 사적 고통의 체험과 반추가 아니라 한 시대, 한 민족이 더불어 느낀 고통의 반성이다. 고통을 반성하는 방식은 그 시대와 민족의 문화적 바탕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며, 이에 따라 산출되는 비극 또한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떠한 정신적 바탕 위에서 고통을 반성하고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려 한다.
고대 그리스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정신적 바탕은 '자유'였다. 특히 기원전 5세기는 한마디로 '자유'를 본질적 이념으로 삼고 있던 시대였다. 비극은 자유의 문화가 가장 찬란하게 꽃피웠던 기원전 5세기에 발달했던 문화 양식이다. 따라서 그리스 비극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리스의 자유의 이념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원(語源)으로 본 그리스의 '자유'

때때로 고대 그리스의 자유를 형이상학적으로, 예컨대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자유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의미의 자유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롭다 elentheos는,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자기가 태어난 공동체에 귀속해 있는 상태를 지칭하였다. '자유롭다'는 인간의 실존, 존재의 근본 형식(조건)이라 말할 수 있다. 태어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가 고향을 떠나지 않는 한, 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그렇다면 그리스 노예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스 사회에서 노예는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 온 사람들이었다. 자기 땅에서 더불어 태어난 사람들이 계급 분화를 일으켜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 사회(나아가 고대 로마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날 자유 liberty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형용사 liber의 복수형 liberi는 동시에 명사로 쓰여 children을 의미했는데, 그것은 적법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즉 공동체에서 적법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그 자체로 자유로웠다. (그리스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로 넘어갈 무렵 경제적 발전에 의한 계급 분화를 겪었다. 이 때 그리스 사회 체제를 정비한 솔론의 개혁 입법은 몸을 담보로 하여 동료 시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이렇듯 그리스 사회에서 인간은 태어난 공동체

에 속함으로써 자유로웠다. 그들은 차별적인 지배를 받지 아니하였고, 나의 주인인 동시에 더불어 공동체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다.

권력과 자유: 호메로스에서 페리클레스까지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공동체 내 권력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속에서 그리스인의 자유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지 전해지는 텍스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호메로스를 통해 본 그리스의 권력관

역사 시대로 넘어가면 그리스 사회에는 여타 오리엔트 지방에 있었던 의미의 왕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호메로스 시대에는 왕이란 직책이 존재하였고 나아가 그것은 익숙한 지배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 호메로스에서 왕을 지칭하는 말로는 바실레우스 basileus, 아낙스 anax 등이 있다. 특히 바실레우스는 나중에 왕을 지칭할 때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꼼꼼이 살펴보면 호메로스의 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 혹은 고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왕이 아니다. 한마디로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자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었다. 바실레우스, 아낙스 외에 왕의 뜻으로 쓰인 코스메토르 kosmetor는 원래 kosmos(질서, 우주의 뜻. 동사는 kosmeo 정돈하다, 질서 잡다, 장식하다)에서 온 말로 어원적으로는 '장식하고 꾸미고 질서 잡는 사람'을 뜻했다. 이를 보더라도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정치적 권력은 물리적 힘의 개념이라기보다 미적인 질서, 조정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사례①: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다툼(『일리아스』 제1권)

전리품으로 약탈해 온 크리세우스 Chryseus의 딸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그리스군은 회의를 연다. (회의 agora는 나중에 너른 의미로 광장, 시장을 지칭하게 된다. 아고라가 회의에서 광장으로 변한 것에서 미루어 보아 그리스의 회의는 원래 밀실의 담합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의 토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삽화에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 볼 것은 그리스에서 왕의 권위는 결코 절대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회의의 도입부에서 예언자 칼카스가 아가멤논에게 발언의 이해를 구하는 장면을 보자. 칼카스가 쓰고 있는 '지배하다' '복종하다'라는 표현을 유심히 보면, '지배하다' krateei의 경우 명사 kratos=힘, 지배력(물리적, 정신적)에서 나온 말로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복종하다'의 뜻으로

쓰인 peithontai는 원래 peitho(설득하다)에서 온 수동태 혹은 중간태이다. 다시 말해 '복종하다'는 원래 '설득당하다'의 뜻을 지닌 자동사형인 것이다. 이는 무얼 말하는가? 복종할 때 그들은 단지 폭력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설득당하고 납득당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왕의 권위는 단순히 폭력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설득, 정당성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비굴한 굴종이 되어 버린다. 이렇듯 그리스인들이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언제나 주체적인 동의를 암암리에 포함하고 있었음을 이 말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리세우스의 딸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칼카스의 말에 아가멤논은 마지 못해 따르기로 약속하지만, 대신 그는 자신에게도 합당한 '명예의 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예의 상'=geras는 '선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특별히 명예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공적인 선물, 혹은 왕이나 귀족에게 귀속되는 특권, 혹은 그 권리에 의해 얻게 되는 상을 일컫는다. 가장 소박하게는 이 삽화에서처럼 전리품의 분배, 몫을 뜻했다.) 이 문제로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은 심하게 다투는데, 주목할 것은 그 토론의 팽팽하고도 대등한 대립이다. 이 점 역시 호메로스 시대 그리스 왕의 권위가 오리엔트의 그것과 확연히 달랐음을 여실히 확인시켜 준다.

한편 아테네의 중재 장면에선 아테네와 아킬레우스를 통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인간들 사이에서 지배자/피지배자의 관계가 느슨했던 만큼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이지 않다. 이들 대화에서도 '복종하다'를 나타내는 말은 여전히 peithontai '설득당하다'이다. 신이 인간에게 명령할 때도 다짜고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대가 내 말에 따라준다면" 따위의 말로 시작하곤 한다.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다툼은 나이 많은 현자 메스토르의 중재로 가까스로 일단락된다.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이 자신의 '몫'을 뺏으려 들어도 완력으로 막진 않겠다고 말한다. 왜냐면 그것은 "너희들 모두가 나에게 준 상"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메스토르가 아가멤논에게 아킬레우스의 몫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까닭 역시, "그것은 그리스인들 모두가 그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geras가 한 개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전체가 인정해서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geras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긴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의 승인과 동의에 의해 나오는 것이지 결코 왕의 권위나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호메로스에서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고 코스메토르, 즉 조정하고 정돈하는, 미적인 조정자에 더욱 가까운 면모를 보인다. 비록 호메로스가 표상하는 왕이 상고시대의 지배 형식이긴 해도 이런 삽화는 그리스인들이 민주주의가 싹트기 전에 지배와 피지배 관

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호메로스는 이런 예화를 빌어 공동체를 지배하는 자의 권위가 어떻게 주어지고 유지되며 관철되는지를 그리스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가멤논은 고전적 전제 권력을 고집하는 사람인 반면, 아킬레우스와 기타 인물들은 그것을 견제하면서 합리적인 동의에 따라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민주적 정신을 보여주는 이들로 그려진다. 호메로스의 이상이 후자에 가까운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사례②: 사르페돈 Sarpedon과 글라우코스의 대화

사르페돈(뤼키에인의 왕)이 전투에 임하면서 글라우코스에게 하는 말은 그 시대 왕들의 전형적인 자기 인식이 어떠하였는지, 그리스인들에게 적극적 의미에서 권력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시켜 준다. 사르페돈에 따르면 왕은 연회에서의 좋은 자리와 기름진 음식, 넘치는 술, 아름답고 큰 영지 등의 특권을 누린다. 무엇 때문에 그런 특권을 지니는가? 그것은 왕이 전쟁터에서 앞서 싸우는 용기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왕이 지니는 뛰어난 힘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적들을 무찌르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왕의 권위에 정당성을 제공한다. 어떤 공동체 속에서 지배자가 가져야 할 덕목은 적들과의 관계에서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백성들을 적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힘과 탁월함인 것이다.

§ 사례③: 오뒤세우스-페넬로페의 경우

오뒤세우스는 이타카 섬의 왕으로서 그의 아내인 페넬로페는 오뒤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20년을 한결같이 기다렸다. 그런데 이 일화를 곱씹어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명색이 왕이었거늘 오뒤세우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객들은 날마다 왕궁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 심지어 오뒤세우스가 귀향한 후에도 그는 직접 제 손으로 정적들을 제거해야 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호메로스 시대 때부터 오리엔트적 의미의 전제 군주는 그리스인들에게 낯선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왕은 없었다. 그리스인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평등이었다. 권력 관계에 있어 상하는 있지만 왕이 가진 권력과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페리클레스: 기원전 5세기의 자유 인식

이런 식의 전통은 고전기에까지 이어진다. 그리스인들에겐, 동일한 공동체에 속하는 인간은 평등하며, 권력자들은 힘과 탁월함으로 백성들을 지켜줘야지 무력으로 군림하려 해선 안 된다는 인식

이 뿌리 깊이 자리잡았다. 기원전 5세기는 이것이 꽃핀 시대였다. 우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전쟁 초기 페리클레스가 전몰 장병 추도 연설을 하는 장면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설문에서 페리클레스는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아테네인의 자긍심을 남김 없이 보여 준다. 그는 자유민의 본질적인 존재 양식이 정치에의 참여라는 것을,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쓸모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그 어떤 근대인들보다 근대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국가의 본질은 자유에 있고 자유가 있을 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할 수 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덕목은 용기이다. 자유인은 만약 노예로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위기의 순간에 용기를 보임으로써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고전기 5세기 그리스인 삶의 최고의 이상은 이와 같은 의미의 자유에 놓여 있었다.